

“일자리 창출 위한 조달사업 추진”

戊戌年 새해설계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



“무술년 새해에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조달사업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전격하겠습니다.”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15일 “새해에도 지역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달청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각오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광주조달청은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

지역중기 성장·발전 적극 지원

고객 애로수렴 제도·관행 개선

달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며 “그 결과 12월 말 기준 2조4천129억원을 집행해 목표(2조2천463억원)를 초과 달성(107.4%)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새해 역점 업무로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 고객 중심의 조달행정 실천,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 지원, 벤처·혁신기업 육성 및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내세웠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입찰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게 입찰 가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조달청의 주요 고객은 업무를 위탁하는 수요기관과 계약의 상대방인 조달업체”라면서 “정책 설명회, 조달업체·수요기관·조달청이 함께하는 3자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객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조달정책의 실효성을 피드백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후에는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우수제품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확대, 우수제품 소개 책자 배포,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 여행·체류 서비스 상품 발굴 및 나라장터 등록, 전통 문화상품 및 전통주·식품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벤처기업 나라장터 등록

에너지 신산업 공공수요 발굴

신제품, 융·복합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과 이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이 나라장터 벤처나라에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벨리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ESS(에너지 저장장치), 전력 ICT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제품의 공공수요를 발굴,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청장은 “광주조달청은 그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잡아왔다”며 “재임 기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한국전력(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15일부터 1개월간 중기 제대 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배전분야 전문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제대군인 배전 시공인력 양성

교육후 우량 협력업체 취업 알선

한국전력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배전 시공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전(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15일부터 1개월간 중기 제대 예정 군인(5년~10년 복무 후 제대 예정)들을 대상으로 배전분야 전문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체결한 한전-국방부간 ‘제대군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으로, 배전전공 교육과정 운영·교육비 지원·교육이수자 배전전공 자격증 발급·우량 협력업체 취업알선을 통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전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교육 관

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국방부 주관으로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인원 15명을 선발했다.

교육은 배전시공기준, 전기안전 및 전기기기이론 등 이론교육과 배전분야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되고, 교육장소는 대전전기교육원(충북 증평 소재)에서 실시한다.

한전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수한 배전 시공인력을 배출해 전기공사 현장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채워주고, 제대 이후 젊은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력해 다양한 공익형 사업 모델을 개발, 공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광은 KJ카드 “무술년 최대 100만원 쏜다”

기프트카드 등 경품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새해를 맞아 광주은행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2018 무술년 새해맞이 이벤트’를 15일부터 2월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품 이벤트’를 통해 기간 내 개인 신용카드, 개인 체크카드 누적 10만원 이상 사용한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 기프트카드부터 편의점 모바일 쿠폰까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무이자할부 이벤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온라인쇼핑몰, 병원, 가전, 가구업종에서 개인신용카드 이용시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

공하며, 병원, 가전, 가구업종에 한해서는 6~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 응모는 광주은행 각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광주은행 KJ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과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로 고객과 항상 함께 하는 광주은행 KJ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에너지절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가전제품 구입시에는 에너지효율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 LED전구를 사용하면 수명도 오래가고 전기료도 절약됩니다.
- 자동차를 적정 속도로 운행하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1천784억원 투입

지방중기청, 수출기업화 전환·글로벌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1천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과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일자리 중심으로 수출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수출 중소기업 저변확대를 위해 수출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

해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기업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 채널을 구축해 수출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선별일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협력도 확대한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아시아 시

장에 집중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수출지원 체계 마련, 수출지원센터 서비스 기관 개편,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원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김진형 중기부 광주전남청장은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중진공, 수출입은행, 기보 등 수출지원기관과 합심해 수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은 1월 말부터 개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환준 기자 choihj@kjdaily.com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광주에 연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창작자를 지원하는 공간인 ‘파트너 스퀘어’ 3호점을 오픈해 하반기 광주에 연다고 15일 밝혔다.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광주 동구 금남로 근처의 연면적 4천960㎡(1천500평)짜리 7층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문 연 서울·부산 센터보다 크다.

지역 특색에 맞춰 음식 및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창작자에 특화된 스튜디오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산지직송 판매장터인 ‘푸드윈도’ 입점 업체 중 호남권이 36%를 차지한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최인혁 네이버 비즈니스총괄은 “지역을 이해하고 아끼는 사업자와 창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장 신뢰받는 토종 브랜드 !
프랜차이즈 업종과 다른 광주 본사 향토기업 !

좋은 **짜** 만날 때까지
하나연

차별화된 정보망 좋은짜 만날때까지... 정서생활 패턴 고려 “맞춤형 매칭 시스템”도입 성실택임 보장제, 지역-수도권 네트워크, 집들이, 갈등 상담등 결혼 정보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

초혼·재혼·만혼 전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번길 (휴먼빌딩 403층)

대표전화 062-369-2121